

투데이 칼럼

정읍의 상징물을 만들어 지역발전의 밝은 미래 열어야

정읍하면 머릿속에 무엇이 떠오를까?

정읍의 상징물은 무엇일까? 어렵스럽게 그려지는 것은 많지만 뚜렷이 새겨지는 이미지는 없다. 정읍하면 '이것이'라고 각인되는 정읍의 상징물을 찾고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이 역사를 갖고 문화가 되고 상품화하여 지역발전 을 이끄는 성장동력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웃 자치단체들의 상징물을 살펴보자.

전주하면 한옥마을이 떠오른다. 이 곳은 불거리 중심을 이루고 비빔밥과 한정식 등 먹거리가 어우러져 조화를 이룬다. 고창하면 북분자, 순창하면 고추장, 입실 하면 치즈는 먹거리가 상징물이다. 그리고 김제하면 지평선 속재다. 이 속재는 역사성을 갖는 수리시설인 벼골재에서 김제민의 고유성을 찾고 이용하여 상징가치를 높이고 있다. 지평선의 너른 들녘의 이미지와 농경문화의 불거리를 교육장이자 체력장으로 성공시켜 수익을 내는 대표축제로 만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자치단체들은 지역의 상징물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왔을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다른 지역과는 차별된 그 지역들이 갖는 자연환경의 특성과 지역의 역사적 상징물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사업에 집중한 결과다. 단체장이 바뀌어도 일관성과 지속성을 갖고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지역의 정체성(아이덴티티)을 만들어 간 결과다. 그 결



정상섭 정읍시 초산동 주민자치위원장, 체육회 총무

과 누구나 기억에 남는 지역의 고유성을 갖는 상징물을 만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정읍은 상징물을 어디에서 찾고 무엇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

크게 정읍을 자연환경, 역사, 문화 사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 방향을 찾고자 한다.

먼저 자연환경적 측면의 상징은 당연 내장산 가을 단풍이다. 설악산 단풍이 충북부지방을 대표한다면 내장산 단풍은 남부지방을 대표한다. 그만큼 빛깔과 모양이 곱고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내장산이 국립공원이라 자치단체의 개발과 활용에 제한이 있지만 거꾸로 관리공단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자치단체에서 좋은 아이템을 제공해 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역사적 측면은 우리 역사상 전 근대와 근대를 가르는 변곡점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인 동학농민혁명의 중심무대인 정읍이다. 혁명의 중심인물인 권봉준 장군의 별명 '녹두장군'을 이용하고 '녹두꽃' 같은 불거리 '녹두전' 같은 방향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찾아 볼 수 있다.

다만 위 두 측면은 타 지역과도 관련돼 정읍만의 상징물로 하기에는 독창성에서 좀 아쉽다. 따라서 국문화사 측면에서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가요인 정읍사(井邑詞)에서 상징물을 찾고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정읍사는 아비가 달을 보며 행상나간 남편의 무사귀환의 소원을 비는 노래다. 당시 아내의 마중길과 남편의 귀갓길에서 느낄 수 있었던 부부간의 애뜻한 사랑이 현대에는 한 가정의 경계를 넘어 인류의 보편적 사랑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사랑이 풀질 송상의 폐해를 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되는 방향으로 승화되어야 한다.

정읍사(詞)는 정읍의 고유성을 찾기에 좋은 소재다. 정읍사공원 주위 는 각종 문화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고 야생안 일원에 산란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며 시내에서 접근성과 시내 조망권도 좋다.

정읍사공원의 역사문화자원, 정읍천 주위의 자연환경자원, 공영 같은 무형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정읍의 상징물을 찾고 이 곳에 상징물을 만들어 정읍하면 '이것이'라고

홍보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내장산이나 황토현 등 정읍을 찾는 관광객들이 정읍시공원으로 연계 유입되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함께 찾아와 치유(힐링)하는 장소와 수확여행지로 교육의 효과를 얻는 장소가 되도록 개발해야 한다.

또한 이들이 '내동시장의 편담거리', '봉영의 충무로 김밥'처럼 생골시장 등에서 정읍의 대표음식과 브랜드(상표)화된 정읍의 '녹두 빈대떡, 녹두전, 녹두죽' 등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음식 문화기반을 더 갖추고 시장의 물건들까지 구매하도록 해 내발적 발전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정읍의 상주인구 증가의 한계를 관광 유동인구의 유입으로 극복하고 실질적인 인구증가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정읍은 상주인구가 65만이나 한옥마을을 찾는 유동인구가 상주인구보다 무려 15배가 넘는 1,000만명에 이른다. 이들이 보고 먹고 인근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정읍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금 나라 안팎의 대표 관광지들은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 잘 만들어진 상징물로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찾아와 지역민들이 편하게 살고 있다. 문화가 자원이고 문화가 경제인 시대다. 따라서 위 측면들에서 정읍의 상징물을 찾고 만들어 정읍의 명성(네임밸류)을 높여서 정읍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

사설

내년 예산을 위한 전북도의 발 빠른 행보

전북도가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 발빠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지방재정법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서 전북도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지 궁금하다고 했던 걸 생각하면 그때와 지금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지난날 박근혜 정부의 의도는 분명했다. 광역 시도 지자체에게 재정 건정성 확보를 말하면서 살림살이 방식에 간섭하겠다는 것이었다. 다들 알고 있는 대로 전북의 재정건정성은 예나 지금이나 높은 점수와는 거리가 멀다. 그래도 도민의 관심사 는 전북도의 딱한 입장 살펴주기 쪽이 아니다. 어떻게 해서든 더 많은 예산을 태내 지역을 보다 속히 발전시키는 것이다.

전북도가 힘을 쏟아야 쪽은 분명하다. 역대 정부들이 국가예산 배분과 관련해 공정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들어설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책사업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달고 있음에도 실상은 그러지 못한 새만금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그 열마나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되었는지 실감이 나지 않는 세월이다. 백년 먹거리 사업이라는 탄소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다. 먼 미래를 내다보기로하자면 그 연평균

는 목표한 바가 이루어지겠지만 지금의 기다림이 여러 세대 후까지 기다려야 하는 백년하청이라면 곤란하다.

전북도는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해 분발해야 한다. 전북도는 4년 연속 6조원 시대를 말했지만 그것은 결코 만족스러운 것도 아니고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다. 전북도는 국가 예산 확보와 관련해 정직해야 한다. 4년 연속 6조원의 내용을 보면 씁쓸하다. 증가율 전국 최하위라는 성적표는 부인할데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송하진 지사와 김일환 행정부지사가 기재부 등 관계자들을 미리 만나고 있음은 매우 잘한 일이다.

지금 전북도에겐 줄 맡은 분명하다. 지역 발전을 약속한 현안사업들에 꾸준히 힘을 쏟아야 한다. 현안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은 도민의 바램이다. 전북도 관계자들은 도민이 기대한 만큼 부응해야 한다. 지역 발전을 약속한 핵심 사업들이 허탈없이 세월을 길게 끌고 있는데 국책 사업마저 정부로부터 후대를 당했던 것은 유감이다. 도지사와 행정부지사의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응원하는 바이다.

지역인재 우선 채용 제도화 또 말해야

지금은 지역 인재 우선 채용의 제도화가 절실한 때이다. 그에 대한 공론화가 활발해져야 한다. 말을 꺼냈으면 뭔가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그래서 좀 오래됐지만 전국 혁신도시협의회의 정기총회가 생 각나는 요즘이다. 전주시장을 비롯해 여러 단체장들이 지역 인재의 무 채용에 관한 법제화 등 세 가지 안건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던 거 말이다.

지역 인재 우선 채용은 말만 꺼내 놓고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다.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전북도를 비롯해 도내 모든 공공기관은 지역 인재 우선 채용의 제도화에 진심으로 뜻을 같이 해야 한다. 예전에 했던 말을 어찌다 생각이 난듯 간헐적으로 되풀이 해가지고 있는 제도화가 이루어질 리 없다.

대선 정국에서 가장 유력하다는 정치인이 전북을 방문을 때의 일이 생각난다. 그때 전북도는 지역 인재의 우선 채용의 필요성을 말한 적이 있다. 그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지역 인재 채용에 대해 먼저 모범을 보여주면서 유력인사의 협조를 요구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도내 공무원 사회의 현실을 보면 지자체들의 지역 인재 고용이 저조하다. 전북도와 도내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보다 진심돼야 한다.

지역 인재 우선 채용 제도화는 서둘러야 할 문제이다. 신규직 태반이 비정규직인데도 구태의연하게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해안 안 된다. 지역 인재 우선 채용은 지자체들에게도 의무가 돼야 한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지역 인재 우선 채용 마련과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식의 행보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미흡지 않다. 전북도와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주고 싶은 말은 분명하다. 지역 인재 채용을 위해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면 먼저 그 모범을 조금 씩이라도 보여야 한다.

사회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독자제언

청소년 전과자 줄이는 '선도심사위원회'

우리 사회의 청소년문제(범죄)는 산업화와 도시화, 핵가족화로 사회변화에 따라 가정,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 사회집단의 통제력 약화로 인하여 나타나는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모 고등학교 학생은 길거리에서 방치되어있던 자전거를 발견하고 호기심으로 타고 갔다가 절도죄로 입건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처럼 도처에 방치되어있는 오토바이와 자전거 등은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 충동 환경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유실물도 마찬가지이다. 길가나 교차로 등에 놓여 있는 휴대폰이나 지갑 등을 생각 없이 습득하여 갔다가 범죄자가 되어버린다. 단지 호기심으로 해봤을 뿐인데 라

고 해도 변명이 되지 못하고 전과자만 될 뿐인 것이다. 한편의 실수가 소의와 상실감으로 이어지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비행청소년과의 접촉으로 연결되면서 비행의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선도심사 위원회는 선도분과, 생활 지원분과, 의료분과, 법률분과 등으로 나누어져 지역사회의 장학사나 변호사 및 청소년복지센터 상담사 등 외부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미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선도심사위원회를 열어 처벌보다는 선도도 힘쓰고 동시에 전과자 양상을 막고자 노력하고 있다. 박재원 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독자제언

농번기철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

농번기철이 다가오면서 노인들의 차도 이용률 높아져 교통사고 발생 위험 역시 증가하고 있다.

농촌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로 구조와 가로등 시설 부족 등 안전시설 부족으로 노인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쉬워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이 중요하다.

차도와 보도가 구분이 없는 도로가 많은 농촌에서 신호 없이 건너는 것이 습관 돼서일까, 편도2차선 도로에서조차도 무작정 횡단하는 분들이 있는 만큼 농촌 어르신들의 보행 안전의식이 많이 부족하다.

'자동차가 나를 앞서서 피해가겠지'라는 생각으로 진행하는 차량을 상안하지 않고 주변을 살피는 것 없이 오로지 앞만 보고 보행하는 분들이 많

은데 이는 매우 위험한 보행습관이다.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야간 보행자 교통사고 사상자의 약 20%가 노인 보행자였으며 전국적으로도 10명 중 4명꼴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야간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였다.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의식이 높아져 간 했지만 상대적으로 안전불감증이 높은 농촌 교량층에 대한 관심과 주의는 더욱 필요하다.

▲야간·새벽시간이나 비가 와 어두울 때 밝은 색의 옷을 입고 보행하기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좌우차가 오는지 잘 확인하고 건너기 ▲차도를 건너나 무단횡단 하지 않기 등 기본적인 규칙 숙지로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도 지킬 수 있길 바란다. 김소정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Advertisement for Jeonju Daily newspaper. Features an illustration of a ship on the sea. Text includes: '용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A platform for rational discourse for humans who bring courage and hope),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 (A better newspaper, a newspaper loved by more people, a newspaper with readers), and '전주매일' (Jeonju Daily) logo.